

# 장애인동계체전 사상 '첫 메달'

전북 농아인여자컬링팀  
사진경기서 동메달 차지

제20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한 전북 농아인여자컬링팀이 체전 사상 첫 메달이자 이번 대회 전북도 첫 메달을 안겼다.

8일 전북도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농아인부 컬링종목 사전경기로 시작된 장애인동계체전에서 전북 농아인 여자컬링팀이 동메달을 차지했다.

전북도에 첫 번째 메달을 안긴 여자컬링팀은 지난해 6월 결성 후 동계체전에 첫 출전해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문진향, 조하나, 정아름, 줄자르갈로 구성된 여자컬링팀은 8강전에서 전남에 2대 6으로 승리하며 가뭇게 준결승에 진출해 강팀 경기도에 아쉽게 패했으나, 동메달 결정전에서 강원에게 1대 1로 대승을 이뤄 동메달을 따냈다.

전북도 농아인컬링팀은 지난해 6월에 남자팀인 JB드립킨즈 5명, 여자팀



제20회 전국장애인동계체전서 동메달을 전북선수단.(사진 위 왼쪽 이충용 감독, 줄자르갈, 문진향 조하나 선수, 이경영 사무처장, 앞 왼쪽 정아름, 김지민 선수). (사진=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제공)

JB드립킨즈 4명, 2개팀으로 구성됐다. 에 거주하는 직장인으로 퇴근 후 야간 선수들은 전주, 군산, 김제, 임실 등과 주말을 이용해 전주빙상경기장에

서 기본기부터 집중강화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도내에는 컬링전용경기장이 없어 주말과 휴가를 이용해 전주에서 강릉컬링센터와 이천장애인선수촌을 오가는 장거리 전지훈련이라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서로 격려하며 탄탄한 호흡을 맞춰 팀워크를 다졌다.

컬링팀의 훈련지도는 2015년부터 휠체어컬링을 지도해오던 도장애인체육회 소속 선수 출신 이충용 지도자가 맡고 있으며, 그동안 휴일과 주말을 반납하고 동계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한 결과로 체전 컬링 출전 사상 최초의 메달 획득이라는 결실을 이뤄냈다.

농아인남자컬링팀도 선전해 공동 5위를 차지하며 전북 선수단에 힘을 더했다.

총감독인 도장애인체육회 이경영 사무처장은 "하루는 훈련환경 속에서도 메달을 획득한 여자컬링팀 선수·지도자와 팀 결성에 협조해 주신 전북농아인협회 관계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북지역 청각장애인들의 체육 활동 활성화와 저변확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진안군 용담승마클럽 유소년 승마단이 지난 3~5일 장수승마장에서 열린 2023년 KEF Winter schooling show(2차) 대회에 참가했다.

## 올 첫 참가대회서 '입상'

진안 유소년승마단  
80class 장애물경기서  
안전중 김재훈 1위  
김하은은 2위 차지

진안군 용담승마클럽 유소년 승마단(대표 이영래)이 올해 첫 참가한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는 기쁨을 토했다.

지난 3~5일 장수승마장에서 열린 2023년 KEF Winter schooling show(2차)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선수들 사이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역량을 펼쳤다. 용담승마클럽 유소년 승마단은

마장마술, 장애물 경기, 릴레이 경기 등을 치르며 순위를 결정했다. 용담승마클럽은 장애물 80class에서 안전중 김재훈 선수가 1위, 안전중 김하은 선수가 2위, 장애물 포니 100class에서 안전중 김재훈 선수가 1위로 입상하며 실력을 입증했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는 마장마술 경기에 처음으로 참가해 안전중 김고경 선수가 4위, 김재훈 선수가 5위를 기록하며 가능성을 보여줬다. 진안용담승마클럽 이영래 대표는 "3월 예정인 소년체전 선발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승마단 선수들이 전국적으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ISSF 자카르타 월드컵 단체 은메달

임실군청 사격팀 황성은

임실군청 실업 사격팀 황성은 선수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13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ISSF(국제사격연맹) 자카르타 월드컵에서 25m 권총 단체전 2위를 차지했다.

황성은 선수는 지난 6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격장에서 열린 여자 25m 권총 단체전에서 기업은행 관중해 오민경 선수와 함께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하여 인도네시아와 카자흐스탄을 제치고 은메달을 차지했다.

작년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25m 권



총 종목에서 개인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황성은 선수는 국제사격연맹(ISSF)

에서 주관하는 이번 자카르타 월드컵 은메달로 2024년 파리 올림픽 준비에 청신호를 보였다.

관인수 임실군청 실업 사격팀 감독은 "항상 선수들이 마음 편하게 훈련하고, 대회에 참가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은 임실군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심 민 군수는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은메달을 획득한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각종 대회에서 임실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체육회, 오늘

스포츠메세나 시상식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홍)는 오는 9일 오전 10시 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픽 피아홀에서 제3회 한국스포츠메세나 시상식을 개최한다.

한국스포츠메세나 시상식은 한국 스포츠 발전을 위해 지원해온 회원종목단체 회장사 및 후원사 기업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는 자리로 2020년부터 시작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및 회원종목단체 재정 자립에 기여한 기업 중 회장사 부문 3개 기업(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후원사 부문 4개 기업(대한체육회장 표창) 등 총 7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세부적으로 비장애인체육 부문 5개사, 장애인체육 부문 2개사가 수상했다.

회장사 부문 수상 기업은 △제너시스비비유그룹(대한빙상경기연맹) △OK금융그룹(대한럭비협회) △LG에너지(대한장애인축구협회)이며 후원사 부문 수상 기업은 △(주)플링(대한산악연맹) △한국지역난방공사(대한투지경기연맹) △(주)피파스포츠(대한하키협회) △(주)그래미(대한장애인농구협회)다. /뉴시스

## FC서울 황의조·전북현대 조규성, 어린이날 빅매치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최전방 공격수 자리를 두고 다투는 황의조(31)와 조규성(25)이 프로축구 K리그 무대에서 만난다. 두 선수의 첫 맞대결은 어린이날 성사될 예정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노팅엄 포리스트 소속인 황의조는 임대를 떠났던 그리스 리그 올림피아코스에서 적응에 실패한 뒤 K리그 FC서울에 합류했다. 황의조는 6개월간 서울에서 뛰며 이를 발판으로 프리미어리그 입성에 재도전할 방침이다.

유럽 진출설이 파다했던 조규성은 소속팀인 전북 현대에 잔류했다. 조규성은 2022 FIFA 카타르월드컵 가나전에서 2골을 터뜨려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조규성은 스코틀랜드 셀틱, 독일 마인츠 등 유럽 구단들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지만 전북의 설득 끝에 일단 K리그에 잔류했다. 셀틱은 결국 조규성 대신 수위 삼성 공격수 오연규를 영입했다.

각기 다른 이유로 한국에서 뛰게 된 두 선수는 이제 K리그에서 자존심 대결을 펼치게 됐다. 황의조와 조규성 모두 올 여름 유럽행을 꿈꾸고 있는 상황이다. 개막 후 상반기 성적이 유럽 진출의 발판이 될 수도,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두 선수 간 맞대결은 실력을 견줄 적절한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전북의 맞대결은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리그 11라운드로 열린다. 앞선 10경기에서 득점포를 노릴 두 선수는 리그 11번째 경기에서 진검승부를 할 전망이다. /뉴시스

## 김연경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 도와달라"

SNS 통해 기부 방법 소개

배구 여파 김연경(35)이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 도움을 달라고 호소했다.

김연경은 지난 6~7일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튀르키예 지진 소식을

전하며 튀르키예에 기부금을 보내는 방법을 소개했다.

김연경은 3번에 걸쳐 튀르키예를 향한 도움과 지원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김연경은 튀르키예와 인연이 깊다. 여자 배구 최고 리그가 있는 튀르키예

에서 10년 가까이 뛰었다.

2005년 흥국생명에서 데뷔한 김연경은 일본을 거쳐 2011년 튀르키예 여자 배구 리그 페너르바체에 입단해 2017년까지 뛰면서 우승 트로피를 여러 차례 들어올렸다.

2017~2018시즌을 중국에서 보낸 김연경은 2018년 다시 튀르키예로 돌아가 2020년까지 액자시바사에서 뛰고 국내로 복귀했다. /뉴시스

